

## 學問과 生活

### 哲學의 濫尊觀念에 抗하여(1)

金午星

타-레스는 天體의 秘密을 探知하려고 오직 天空만 쳐다 보고 걸어가다가 도랑에 빠져 버리고 말았다. 뒤를 따르는 도라-카란 少女가 이것을 보자 天體의 事實을 探察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도 自己의 발뿌리 아페 일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 이 老人의 行爲가 하도 웃어 워서 抱腹哄笑하였다는 傳說이 있다. 타-레스는 누구나 다-아는 바와 가티 哲學의 祖上이다. 哲學史의 첫 頁은 한결 가티 타-레스로 부터 始作된다. 이 타-레스를 先頭로 한 古代의 希臘哲學은 地上의 事實 또는 좀더 가까운 人間自己네의 事實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안코 人間과는 너무도 距離가 먼 天體 또는 自然界의 秘密을 探密 하려는 대만 沒頭헛든 것이 事實이다. 이들 自然哲學자에 比하면 타-레스의 行爲를 哄笑한 無識한 少女 도라-카가 차라리 實際的이요, 地上의 眞理, 人間의 眞理를 先覺한 者라고 볼 수 잇을 것이다. 이제 이 傳說을 ale는 사람들은 哲學은 本來 非實際的인 空想에서 出發 하였다는 斷案을 아무 躊躇도 업시 내리고 있다. 그리하여 오직 書齋나 講堂만을 自己의 世界로 알고 잇는 일은바 純正哲學者들은 이 事實을 오히려 誇張하면서 『哲學은 그 始初부터 區區한 現實問題에 執着하지 안헛고 錯雜한 現實과는 떠나 잇는 이데-世界를 探求하는 것이었다』 고 하여 哲學의 非實際性을 主張하고 잇스며, 이러한 哲學者들의 참고대에 厭症이 난 哲學圈外의 사람들은 『哲學이란 有閑한 書生들의 부질업슨 空想이니 우리의 關知할배 아니라』 하여 度外視 하거나 或은 拒否하는 態度까지 보여 주고 잇는 것이다.

그러면 哲學은 참으로 우리의 實際生活에는 아무 關聯이 업시 되어지는 空想의 產物에 지내지 안는 것일까? 그리고 以上の 傳說은 哲學이 本來非實際的인 것에서 出發 하였다는 證據가 되기에 足한 것일까? 나의 생각에 依하면 哲學의 非實際性을 말하는 온갖 見解는 哲學을 誤解하거나 哲學者들 自身의 錯覺에서 基因한 것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哲學에 對한 이러한 誤解는 그 責任이 現代人에게 잇는 것이 아니고 古典哲學의 建設者들에게 있다

할 것이다. 哲學의 非實際性을 云謂하게 된 것이 그들 古典哲學者의 錯覺에서 起源한 까닭이다. 그러면 그들은 哲學에 對하여 어떤 錯覺을 갖고 잇섯는가?

希臘哲學의 大成者의 한 사람인 프라-톤은 哲學을 『驚異』의 產物이라 하였다. 驚異-이것이 온갖 哲學의 動機라는 것이다. 天體의 神秘! 宇宙萬像의 變化! 이것은 남달은 天才的 知性을 갖고 잇는 希臘人들에게는 너무나 큰 驚異와 好奇心을 일으키게 하였다. 驚異는 人間의 實際와는 떠나 事物自體가 가지고 잇는 美와 價値를 發見하며 玩賞할 때 생겨지는 心的狀態이니 이러한 驚異와 好奇心이 自然哲學의 根本動機가 되어 졌다는 것이다.

驚異! 對象에서 마든 驚異가 그것을 探求해 보려는 哲學的 思索의 動機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首肯하지 안할 수 업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驚異는 果然우리의 實際生活의 利害關係와 떠나서 나타날 수 잇을까! 우리는 事物自體의 美와 價値를 차저 낼 수 잇을까! 우리의 實際生活과 아무 關聯이 업는 곳에 우리들의 注意와 關心은 미치지 안는다.